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u>(주2, 주3 신설)</u> | <u>(주2) 퇴직연금 등의 연금형 펀드들과 같이 고객의 투자기간이 충분히 길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의 경우, "장기투자 및 적립식 투자방법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반영하여, 상기에 의한 등급보다 낮은 위험 등급 적용이 가능합니다.</u> <u>(주3) 상기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내부기준에 대한 예시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u> |
| 제2부. 14. 가. 이익배분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u>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u>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 제2부. 14. 나.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u>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u>예를 들어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u>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u>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 |

| | | |
|--|---|--|
| | <p>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u>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u>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p> <p>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u>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u></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u>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u></p> <p><u>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u></p> | <p>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p> <p>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p>(단서 삭제)</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p> |
|--|---|--|

| | | |
|--|---|---|
| |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u>투자신탁의 과세이익</u>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u>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u>※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u></p> |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u>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u>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p> <p>(삭제)</p> |
|--|---|---|